제7차 미디어이용자 권익포럼

후보자 검증과 정책 실종, 20대 총선 보도를 진단한다

그들만의 리그, 유권자 관점 없는 총선 보도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유권자 중심의 보도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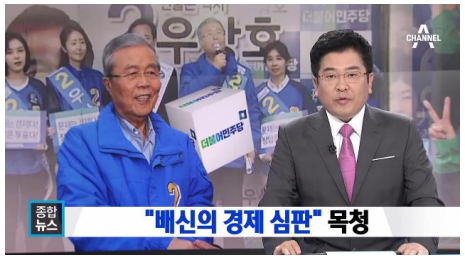
그들만의 리그
1) 당대표 중심의 보도

이번 선거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며, 253개 지역구에 93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그러나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는 김무성, 김종인/문재인, 안철수 등 3당 대표의 행보를 집중보도 하였고, 지역구의 후보자를 다루는 것에는 소홀하였다.

보도의 내용은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치중되었고, 이밖에도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지,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가십 위주의 보도도 등장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후보를 업어주는 장면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유권자들에게는 나의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오고, 이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중심의 총선보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3월 31일 KBS, MBC, SBS, TV조선, 채널A의 메인 뉴스에서는 각 당 대표의 첫 유세 현장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선거기간 내내 반복되었고, 이들 보도는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의 행보와 발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3당 대표에 집중된 보도가 아닌 내 지역의 후보와 그들의 정책을 다룬 보도이다.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중심의 총선보도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겠죠. 각 당 대표는 어부바도 하고, 춤도 추고, 유권자가 건네는 음식도 마다치 않고 먹고 있습니다. 표를 위해서 체면이 구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주일째 전국을 돌며 유세 차량에서 목청을 높인 끝에 목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전에서는 목소리가 곧 무기인 만큼, 남은 날들을 위해 목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목이 쉴 대로 쉰 김무성 대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시에 살구씨를 시간 날 때마다 먹고, 김종인 대표는 목에 좋은 사탕과 물을 수시로 먹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동 차량에서 '용각산' 가루와 도라지 차를 먹으며 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2) 공천, 계파 갈등 위주의 보도

새누리당 공천 갈등과 각 당의 계파 갈등은 이번 총선 보도의 단골 이슈였다. 총선 보도를 통해 비○ , 친 ○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파 갈등은 정치권 내부의 갈등일 뿐이다. 언론은 정치권 내부의 편가르기를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유권자의 눈으로 선거 판세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 공천갈등에 집중된 보도

3월 24일, 25일은 새누리당의 공천갈등이 언론의 주요 이슈였고, 방송사들은 일제히 이와 관련된 뉴스를 쏟아냈다.
그러나 한 당의 공천갈등이 이렇게 많은 양의 보도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유권자들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시간 순서대로 시청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새누리당 공천갈등에 집중된 보도

후보 등록 기간 공천 갈등 보도 이외에도 새누리당 공천갈등 보도는 계속되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한 후보들에게 대통령의 사진을 반납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관계 변화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보도의 내용은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는 새누리당 내의 갈등이므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

각 당의 계파 갈등에 집중된 보도

총선 기간 동안 친박, 비박, 진박, 친노, 비노, 호남계, 안철수계 등 표현을 자주 접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정치권 중심의 표현이며, 계파 갈등은 정치권 내부의 갈등이다.
새누리당 공천 갈등과 마찬가지로 각 당의 계파 갈등 또한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며,
이러한 표현은 정치혐오를 부추겨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를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들만의 리그
3) '대통령 후보'를 점치는 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선거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대권 잠룡'이라며 차기 '대통령 후보'를 다루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도 방식 또한 정치권 위주의 발상을 보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총선은 총선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권으로 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을 언론이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보다 ‘대통령 후보’

채널A와 TV조선은 반기문에 대한 언급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잦았다.
특히 채널A의 경우 충청지역을 ‘반기문 벨트’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반기문 벨트의 심장‘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충북 방문 소식을 다루었는데,
선거 기간 대통령의 지역 순회를 비판하지는 않고, ‘반기문 벨트‘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그들만의 리그
4)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보도

총선 보도에서 계파를 지칭하는 표현만큼 자주 등장하는 말은 '○○벨트', '△△라인'이다.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용-수-성 벨트, 경기 남부 벨트, 동일로 벨트, 용-수 라인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각 지역을 묶어 파편화 시키는 것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총선 보도

동일로 벨트, 낙동강 벨트, 반기문 벨트, 심지어 대선 족집게 벨트까지… 이번 총선 보도에서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통'적인 지역구도가 깨진 지역이 있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에서 탈피하여 인물과 정책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지역주의 기반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당을 지역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권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 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리그
5) 총선 보다 대통령? 미세먼지?

재외국민 투표, 선상 투표, 사전 투표 등 4월 13일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보다는 다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총선 주요 일정과 무관한 첫 번째 기사

20대 총선 주요 일정

3월 24일~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3월 30일~4월 4일	재외투표소 투표
3월 31일	선거기간개시일
4월 5일~4월 8일	선상 투표
4월 8일~4월 9일	사전투표소 투표
4월 13일	투표

4월 4일

4월 4일은 재외국민 투표가 마감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단신으로 처리되었다.
주요 투표 일정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견인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방송사들은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심지어 TV조선, 채널A, MBN은 첫 번째 꼭지로 대통령의 행보, 조세 회피처 관련 소식을 다루기까지 했다.

4월 5일

TV조선과 MBN는 4월 4일에 이어 4월 5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첫 번째 꼭지로 다루었다.

4월 8일

jtbc
다소 높아진 사전투표율…첫날 5.45%

KBS1
9
北 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 입국

MBC
8
北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00:06
01:46
자막

조선 LIVE
판
13명 집단 탈북…"김정은 체제에 회의"

SBS
北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

CHANNEL A
종합 뉴스
北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
1:41
더 가기
CHANNEL A

MBN
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4월 9일

4월 8일과 4월 9일은 사전투표일이었다. 사전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 높아져 이슈가 되었지만, 4월 8일에는 JTBC만 단독으로 첫 번째 꼭지에 사전 투표 소식을 전했고, 4월 9일에는 TV조선은 야구 소식, JTBC, MBN은 미세먼지 소식을 첫 번째 꼭지로 전했다.

그들만의 리그
6) 통진당 이력 검증

TV조선은 통진당 출신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반복적으로 내놓았다.
이처럼 통진당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후보를 검증하는 좋지 않은 검증 방식이다.
후보자 전과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면서,
통진당 이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이번 선거를 이념선거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들만의 리그
7)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

앞서 정치권 시각의 보도를 분석하였고, 지금부터는 방송사 위주의 보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방송사 위주의 보도는 가십 위주, 흥미 위주의 보도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말한다.

후보자 주변 인물을 다룬 보도

부창부수라고 하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좀체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부인들이 선거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선거판에도 적용될까요.

이번 총선에선 미모의 유명인 아내 덕을 톡톡히 보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배우 '심은하 남편', 아나운서 '김경란 남편'으로 더 유명한 후보들인데요.

당 대표가 전국의 다른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느라 정작 자신의 지역구는 챙기지 못하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아내들의 내조 경쟁을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자 주변 인물을 다룬 보도

과거 선거에서 어느 후보는 자식 때문에 눈물로 사과를 한 적도 있지만, 어느 후보는 아들이 SNS에 올린 호소의 글때문에 당선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번 총선에도 유독 자식들이 많이 선거에 등장했네요.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아직도 모를 일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개소식에 참석한 딸 유담 씨. 후보 본인보다 딸의 미모가 인터넷에서 화제에 오르면서 "대구에서 장인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선거송, 유세방식 등

새누리당 중진들이 난생처음 랩을 부르며 실수를 연발하는 '뛰뛰빵빵 2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뛰.뛰.뛰.뛰. 뛰어라 국회" "일.일.일.일 일하는 국회” 영상에서는 친박비박 공천전쟁의 당사자였던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손을 잡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 파주을 후보는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본떠 현역 때 군복 입은 사진을 현수막에 걸고 자신을 '파주의 후예'로 내세웠습니다. 박종준 새누리당 세종시 후보는 대형 풍선을 등에 업고 평균 연령 31세인 세종시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찬열 더민주 경기 수원갑 후보는 세그웨이를 타고 시민들을 찾아 나서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막말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경제전문가라며 1호 영입한 주진형 '경제 대변인'. 현안 브리핑에서 73살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냅니다.

[주진형/더불어민주당 '경제 대변인'] "노년에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엄하게 집에서 아무도 안 찾아주는 노인 불러다가…."

어제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막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더민주 내에서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그러나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진형/더불어민주당 '경제 대변인'] "특별히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야권단일화 문제로 더민주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도 막말에 가세했습니다. 올해 일흔일곱의 더민주 김종인 대표에게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여우집에 굴러온 늙은 하이에나처럼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가 호남대변인을 자처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전북의 한 50대 국민의당 후보는 토론에서 경쟁 후보에게 65살에 출마한 건 너무 늦었다며, '나이'를 문제 삼았고 논란이 되자 정치를 좀 일찍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씨'로 호칭하거나, 여당 중진 의원들을 인터넷 은어나 모욕성 발언으로 깎아내리는 등 막말 고질병이 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막말 주의령을 내리면서 돌발악재를 경계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8) 기타

이밖에도 텃밭, 집토끼 등 정치권 중심의 권위주의적 단어 사용과, 새누리당 중심의 보도방식, 앵커의 옷 색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치권 중심의 권위주의적 단어 사용

총선 보도에서는 정치권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집토끼, 들토끼, 산토끼 등의 표현은 지지자, 부동층 등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리고 무주공산은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산이라는 뜻인데, 지역 앞에 무주공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권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충청지역에 지역정당이 없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역정당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언론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텃밭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

또한 ‘관전 포인트’라는 표현도 유권자를 선거의 주체가 아닌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 단어이다. 즉, 총선 보도를 통해 언론은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정치권의 입장으로 관전 포인트를 설명하며 유권자를 선거의 주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KBS는 4월 11일 〈총선 이틀 앞…5대 관전 포인트는?〉에서 관전 포인트로 새누리당의 과반 여부, 호남의 선택, 국민의당 비례 의석 수, 대선 잠룡 성적표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유권자들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 정치권의 ‘관전 포인트’이다. 이는 유권자 중심의 관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보도라고 볼 수 있다.

‘새누리’ 여러 건, ‘더민주’와 ‘국민’은 묶어서 한 건

3월 31일 MBN은 새누리당을 두 꼭지 다룬 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한 꼭지로 묶어서 보도했다.

4월 1일 MBC는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한 꼭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묶어서 한 꼭지로 보도했다.

새누리당에 관한 뉴스는 단독으로 여러 건에 걸쳐 다루고, 야당은 묶에서 다루는 것은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누리당을 중앙에 배치

각 당의 소식을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순서로 배치한다.
그런데 채널A는 3월 31일 새누리당 로고를 중앙에 배치했고,
김무성 후보 역시 중앙에 배치했다.
이는 새누리당 편들기의 하나의 사례이다.

MBN 메인 앵커의 빨간 옷

4월 4일~6일 3일간 빨간 옷만 입은 MBN 앵커

총선 보도는 유권자의 시각으로!

총선 보도를 만들어가는 언론 역시 한 명의 유권자이다. 나는 총선 보도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총선 보도의 변화가 시작된다.

유권자의 시각으로 후보자와 정책 중심의 보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총선 보도의 개선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 보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관성적인 보도 태도를 버리고 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하는 대신 공동으로 정책 검증을 하고,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대선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총선 보도와는 다른, 더 나은 대선 보도를 기대한다.